

광주 경제 살리기 해법은 '좋은 일자리' 창출

● 광주 경제 빨간불 ●

<하>시민단체·경제기관 대안

300인 이상 기업수 100여개
전체 사업체의 0.1%도 안돼

'370만원 vs 294만원'
서울과 광주의 올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다. 광주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14번째다. 전국 평균 임금 340만원보다 46만원이 적다.

배랑 끝에 몰린 광주 경제의 해법은 단연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12만개 사업체 가운데 제조업체는 7.5% 수준인 8900여개에 머물렀다. 반면 자영업자의 대표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체 사업체의 16.8%(2만여개)를 차지했다. 광주에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300인 이상 대기업 수는 약 100개로, 전체 사업체의 0.1%도 채 되지 않는다.

오주섭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광주클로버모터스가 적정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 등을 도입해 지역 인재가 공정히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가 포함된 노사정의 신뢰를 우선 가치로 꼽아야 한다는 것이 오 처장의 설명이다.

광주 현안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광주 건설 현장에서 지역 하도급 업체의 참여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폭을 넓히는 데 광주시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옥진 광주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스타트업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규제 개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무는 유망한 스타트업(창업 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기술력을 이전 받아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정부 차원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산학협력 등의 과정을 통해 연구개발(R&D)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지자체, 유관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는 광주상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2년째 진행해온 비즈니스 컨설팅이 내년에는 성과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 자동화(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 등 광주시가 선점하고자 하는 신산업에 모든 물

자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지역 기업의 내실은 장수(長壽)와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기획운영팀장은 "실패하는 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경제 당국의 문을 쉽게 두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자영업자 폐업률은 12.2%로, 8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가동사업자 16만7230명 가운데 2만3313명이 폐업했다. 광주 인구 순 유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박 팀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등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올해 광주·순천·목포 등 전국 30곳에 신설된 재기지원센터에서 폐업으로 어려움을 처한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광/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번주내 '2차 대북통지문' 발송 정부, 금강산관광 실무회담 제안

정부가 수일 내로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재차 제안하는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한다.

정부 당국자는 5일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됐다"며 이번 주 안에 다시 대북통지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통지문에는 실무회담 필요성뿐 아니라 '개별관광' 등 정부의 창의적 해법 등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개별관광'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이산가족 방문과 사회문화교류 행사도 관광수요를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의 관광은 기존의 대규모 관광산업과 비교해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이 (관광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계속 문서협의 방식을 고집할 경우 실무접촉과 문서협의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사흘 만인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이 제안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호남대 독도탐방단 희생자 추모 호남대 독도 탐방단이 5일 오전 독도에서 헬기 추락 사고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귀환 기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2일 전남 고흥군 오천항에서 출발한 호남대 독도 탐방단은 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19세기 말 경복 울릉도를 개척하고 독도(獨島)라는 이름을 부여한 전라도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연합뉴스

'독도 추락헬기' 동체 인양중 유실 실종자 시신 1구 수습

사고 옛새만에... 청해진함 무인잠수정으로 인양

독도 인근 해역에서 추락한 소방헬기 동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 1구가 사고 옛새 만인 5일 수습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동체 인양 위치와 동일한 곳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청해진함 무인잠수정(ROV)으로 인양·수습했다고 밝혔다. 응급원자 이송 중 독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가 추락한 지 옛새 만이자, 동체 인양 과정에서 시신이 유실된 지 사흘만이다.

수색 당국은 오전 0시 30분께 사고 해역에서 해군 청해진함 무인잠수정(ROV)을 이용한 수중 수색으로 시신을 발견하고 인양에 나섰다. 그러나 청해진함의 정위치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자동잠정 위치 유지 장치'의 신호 불안정 등 기기 고장으로 포화 잠수가 중단돼 시신 수습이 한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수색 당국은 이 시신이 지난 3일 오후 2시 4분께 동체 인양 중 유실된 실종자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수색 당국은 동체 주위에 이종으로 설치한 유실 방지 그물망이 동체 일부와 내부 장비 무게를 이기지 못해 시신이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습한 시신은 오는 6일 오전 울릉도를 거쳐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한 뒤 최종 신원 확인 후 가족에게 인계한다.

앞서 수색 당국이 지난 2일 동체에서 각 110m와 150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해 수습한 시신 2구의 신원은 이종우(39) 부기장과 서정용(45) 정비실장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해남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비상

장성 발병 후 6개월만... 전남 11곳 집중 방제

전남지역에서 6개월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해남 송지면 산정리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증상 소나무 2그루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진단 의뢰한 결과 감염으로 최종 판정된 것이다. 지난 4월 장성에서 발생한 뒤 6개월만으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은 11개 시군으로 늘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해남군 송지면사무소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립관리소, 전남도, 해남군, 인근 시군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갖고 분야별 방제에 나섰다.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 피해지역 현장조사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등 4개 기관은 피해목 주변 10km 이내 지역까지 헬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밀 예찰을 하고, 피해목 주변 50m 이내 소나무와 주변지역 우량 소나무리에 예방 나무주사를 한다. 재선충병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목 등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봉진론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해남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다행히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옮겨다니는 시기가 아니어서 감염목을 신속하게 제거할 경우 인접 산림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도민들은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현재 발생 지역인 여수·순천·광양·담양·구례·고흥·보성·장성·무안·신안에서 상반기 피해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올 하반기 방제를 위해 추가 예산 13억원을 확보해 연접지역 중심의 집중 방제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적으로 15개 시·도 119개 시군구에서 50만여 그루가 발생했으며, 전남지역 피해 그루 수는 전국의 1% 규모다. /윤현석 기자 chadol@

내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오채찬란 모노크롬'

이건수 총감독 주제발표... 현대수목에 설치미술·IT 접목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을 주제로 진동화화 뿐 아니라 현대수목을 활용한 설치미술작품과 IT를 접목, 대중성을 높이는 전시로 추진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채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내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하는 전시 기본구상을 밝혔다.

'오채찬란 모노크롬'은 먹이 청(靑)과 황(黃), 홍(紅), 백(白), 흑(黑) 등 5가지 색채를 모두 지니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색임을 의미한다.

내년 비엔날레의 경우 전통성과 현대적 창조성을 결합해 예술성 뿐 아니라 대중성을 강화하는 한편, 목표권 중심의 기존 전시 공간을 진도까지 확장하고 대형 패션쇼 등을 결합한 볼거리와 체험 이벤트를 늘려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들겠다는 전략이다.

전시관은 목포문화예술회관·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진도남도전통미술관·진도금봉미술관·진도 옥산미술관·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등에 5개 전시관과 도시재생, 수목을 융합한 1개 특별전시관을 꾸

미고 전시관별 담당 큐레이터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면서 전체적인 주제와 연관성을 갖는 방향으로 전시를 연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학술심포지엄외에 전시 기간 수목과 IT·디지털 기술을 결합, 대중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10여개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대외 여권을 지켜 보면서 DMZ북한통일수목화합전 기획 여부도 검토 중이다.

비엔날레 사무국은 국내외 스타급 작가들을 비롯, 15개국 16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를 추진해 30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행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편리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슨트를 배치하고, 작품 설명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한편, 유료 입장 관람객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내실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건수 총감독은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수목을 대중화·국제화·브랜드화하고, 전남을 미술한류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유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남구 월산동 땅 127㎡ 2층 주택 118㎡ 1층 임대 7천 2층 주인거주 1억6천
- 월산동 무진동 건너편 내대지 234㎡ 원룸 등 적합 3억5천
- 서구 마북동 도로점 땅 378㎡ 투자에도 좋음 5억2천
- 장성군 인양면 기산리 땅 891㎡ 주택·청고 137㎡ 전방 전용 2억5천
- 곡성군 옥곡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좋음 1억9천
- 김해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항 건너편 680㎡ 전원생활적합 3300만원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땅 1749㎡ 교환 2억 현금 매도도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불면 산림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정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나주시 다시면 광곡동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청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담) 8232㎡ 주위조경용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거터) 부근 대지 652㎡ 남방 생활편리 5억5천
- 통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형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평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방 출몰 1억3천

상가 건물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운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입 2억 청고 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입 있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커뮤니티 매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델빌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음 5억2천
- 월산동 상업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요양시설 영평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 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2020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래밍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주요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작성)	2019. 11. 11.(월) ~ 11. 25.(수)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19. 11. 11.(월) ~ 11. 25.(수)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 일 시	2019. 12. 4.(수) 10:00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19. 12. 20.(금) 11: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전공)
 -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77 광주일보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키노트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 통 광 266-1920 · 윤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안 산 571-7658 · 오 지 266-7601
· 용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5-5530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52-0175 · 백 은 651-1833 · 봉 선 675-5530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우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은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